

좋은 안내자가 될 수 있을까

● 글_이민성·학부지원2팀장

최근에 KIAS에는 새로운 행정직원이 상당수 합류했다.

그간 간혹 신입 직원이 있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구성원이 다수로 늘기는 드문 일이다. 요즘 그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를 생각하게 되고, 또한 나의 업무 대응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돌아켜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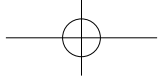
직원 간 업무가 세부적으로 구분된 영국문화원에서 근무하다가 이직하여 온 KIAS는 당시 한 명의 직원이 여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단위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어진 업무를 끝내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 채, 넓은 시야를 갖고 주변과 연관 지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소심한 태도를 보였다.

여러 번의 인사발령 끝에 지난 2009년, 나는 당초에 하던 경영관리팀 업무로 복귀했었다. 쉽게 적응을 할 것이라는 나의 예상과 달리 업무의 양과 범위가 예전과 달라진 까닭에 예상 기간을 넘기도록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이때 나의 업무태도에 새로운 계기를 준 것은 어느 일간지의 칼럼이었다.

‘날 선 면도날이 될 것인지, 녹슨 쇠붙이로 남을 것인지, 그 결단 앞에 우리는 서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연습의 힘’이란 제목의 중앙일보 정진홍 논설위원 칼럼(2009년 4월 4일자)이었다. ‘피아노의 전설’ 예프게니 키신의 연주 실력은 하루도 빼먹지 않는 하루 6~7시간의 연습의 결과이고, 홈런왕 헵크 에런은 매일 정신이 나갈 정도의 배팅연습을 통하여 투수의 공이 수박 덩어리처럼 크게 보이게 되었다는 일화를 담고 있는 내용으로, 내 옷방 앞에 붙여 두고 눈에 뜨일 때마다 읽는, 이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나약해지는 나를 다잡아 주는 칼럼이다.

이 글을 읽고 나서는 업무가 숙련되지 않아 조바심이 나더라도, 나의 능력이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않아도, 끊임없는 연습을 마음을 다해서 하다 보면 목표한 바로 향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업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업무의 기본을 다지고 나니, 관련 부서와의 업무 연관까지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했고, 동료들의 업무도 어떤 일련의 주기로 수행되는지 감이 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부서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의식과 내가 아닌 우리, KIAS라는 인식이 점점 크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비단 이런 일련의 태도가 서류 업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수년간을 함께 하고 있는, 퇴직 후에도 방문하는, 그리고, 여타 방문자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도 마찬가지이다. KIAS의 입장



에서 이들 모두를 대하면서 진심으로 연구진의 입장에서 업무를 하게 되었다. 이런 마음가짐은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깨닫게 되었다.

결국, 나는 KIAS를 위해 이제껏 일을 해왔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KIAS는 나를 기다려줬다. 내가 진심으로 KIAS를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줬고, 지금도 좀 더 진심으로 다가서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최근에 근무를 시작한 후배들을 위해 내가 할 일은 KIAS가 나를 위해 해준 것처럼 올바른 역할을 보여주고 제시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들 자신이 정성을 다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연습에 몰두해야 최고의 연구진이 모이는 KIAS에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물론 간혹 여러 사람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지적을 받아 마음 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훗날 돌이켜보면 KIAS에 지금보다 더 좋은 직원이 되도록 안내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나처럼 그들도 깨닫게 될 것이고, 이런 과정은 반복되어 향상된 행정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문득 1996년 8월 초에 흰색 긴팔 자켓을 입고 파정사 기숙사 2층에 마련된 고등과학원 설립추진단 사무실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던 내가 생각한다.

막내딸이 취직하여 다닌다는 직장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그해 11월 어느 일요일에 이곳을 오셨던 지금보다 훨씬 기운 넘치던 부모님이 생각한다.